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I : 무자녀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최연실**·성미애***·이재림****

■ 국문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자녀 유형(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에 따라 심리적 복지(주관적 행복도, 생활만족도, 자존감, 우울), 부부관계(부부관계 만족도, 부부적응, 별거 혹은 이혼 가능성, 부부 여가시간), 자녀에 대한 태도(본인이 자녀를 원하는 정도, 배우자가 자녀를 원하는 정도, 입양의향, 자녀에 대한 생각, 이상적 자녀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하였고 자녀가 없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54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Tukey 사후검증, 카이제곱(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녀 기혼자는 대체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양호하였고, 전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한 편이었으며,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편이었다. 둘째, 무자녀 유형별로 결혼지속연수, 주관적 건강, 부부소득 적정성, 배우자소득, 종교의 중요도, 맞벌이 여부, 자가 소유 여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무자녀 유형별로 심리적 복지, 즉 주관적 행복도, 생활만족도, 자존감, 우울은 모두

* 본 연구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2S1A5A2A03034353). 2013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최연실(주저자): 최연실은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이며, 가족심리와 임상 작업, 가족관계의 내적 역동 분석, 다문화가족, 한국가족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yschoi@smu.ac.kr

*** 성미애: 성미애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부교수이며, 가족관련 가치, 가족 및 친족 개념,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 일-가족 양립, 은퇴생활, 비혼 여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eliza_s@knou.ac.kr

**** 이재림(교신저자): 이재림은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조교수이며, 취업모의 가족과 일, 조모의 손자녀양육 지원, 청년과 가족, 가족정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jaerimlee@skku.edu

차이가 있었다. 넷째, 무자녀 유형별로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적응, 별거/이혼 가능성 예측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무자녀 유형별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녀를 원하는 정도, 입양 의향, 자녀에 대한 생각, 이상적 자녀수에서 모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무자녀 유형별로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세대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도 이러한 유형별 분석이 무자녀 기혼자의 면모를 파악해 가는 데 있어 유용한 접근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무자녀 기혼자에게 접근해갈 때도 그러한 각 유형집단별 내부적 속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실천적 개입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무자녀 기혼자, 무자녀 유형, 부부관계, 심리적 복지, 자녀에 대한 태도

I. 문제의 제기

한국사회에서는 유교적 전통 규범의 영향에 따라 결혼과 출산은 분리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정서적 의미든 도구적 의미든 가족 내에서 자녀의 존재와 가치는 절대적 의미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됨’의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여 자식을 낳고 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온전히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도 하였다. 부모됨은 행복 추구의 개인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었지만 성원 충족과 인력 공급의 사회적 차원에서도 요구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생산에 대한 압력은 남녀 모두 경험하게 되지만, 특히 ‘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여성들이 더 큰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비정상’이나 ‘일탈’로서 여겨진다. ‘선택에 의한 무자녀’는 이기적이거나 편협하다는 인상이나 편견의 대상이 되고 ‘(불임 등) 상황에 의한 무자녀’는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동정이나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기 쉽다 (Letherby, 2002).

하지만, 한국사회가 ‘애 낳지 않는 사회’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큼 출산율이 떨어지고, ‘무자녀 가족’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 그동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를 거슬러 사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한 의식에도 균열이 생기는 듯하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무자녀 가족은 다양한 가치와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선택 방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서서히 그 존재감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학문적,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상 그동안에는 한국사회가 ‘저출산의 해결’이라는 의제에 매달려, 출산 장려 지향 정책에 매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책 지점에 있는 무자녀 가족에 대해서 주목해 보는 것은 저출산의 원인 분석을 해명하는 데 있어 오히려 역으로 학문적, 이론적 차원의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나의 개입 대상으로서 무자녀 가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것은 정책적, 실천적 차원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인구집단이나 문화계층에 대한 포용과 사회통합의 확대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무자녀 가족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김한곤, 1991) 2000년대 초반에도 수행된 바 있지만(권윤진, 2004; 김경열, 2002; 양성은, 2004), 무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환기는 ‘가족규모의 축소’라는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가 부각되고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공미혜·이수연, 2012, 2013; 김상수, 2006; 김정미·양성은, 2013; 신은숙, 2005; 이수현, 2012a, 2012b; 조준영, 2006; Yang & Rosenblatt, 2008). 아직까지 후속연구 등을 통하여 탐색되고 분석되어야 할 연구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무자녀 가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부분적인 접근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무자녀 가족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무자녀 가족에 대한 탐색적 이해와 경험의 분석이라는 데 비중을 두어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거의 모두 무자녀 여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무자녀 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가 질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주제 자체의 탐색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계량적 분석이 가능한 규모로 무자녀 가족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무자녀 가족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명하고 무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고 이들의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무자녀 가족의 ‘초상’을 스케치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기혼자에게 ‘자녀 없음’은 부인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경험이기도 하므로 무자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자녀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한 자료를 수집,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에서 수행된 기존의 연구들(Callan, 1987; Houseknecht, 1979; Letherby, 2002; McQuillan et al., 2012; McQuillan et al., 2007)을 통해서 볼 때, 무자녀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무자녀 가족의 형성 배경에는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자발적인(voluntary) 선택, 비자발적인(involuntary) 불임, 사고나 질환 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용어도 ‘무자녀(childlessness)’, ‘불임

(sterility)'과 같이 수동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부터 '비자녀(childfree)'와 같이 능동적으로 보는 입장까지 존재한다(Gillespie, 2003). 부모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와 불임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무자녀 상태가 된 것은 '선택' 여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발형과 비자발형의 심리적 복지나 가족생활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는 결혼 초기에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비교적 장기간 임신과 출산을 늦추는 연기형 무자녀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Tanturri & Mencarini, 2008). 연기형은 자발형이나 비자발형과는 달리 일시적인 성격을 띤다. 이들은 향후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하여 자발형 무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되려고 시도하지만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비자발형 무자녀가 될 수도 있다. 연기형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집단을 자발형이나 비자발형과는 다른 성격의 집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무자녀 가족'이라는 통칭 하에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성격을 갖는 집단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화시켜 접근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자녀 유형을 '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특성을 설정한 이유는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그리고 세대적 차원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변수들을 통해 이들의 가족생활의 내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복지를 대표 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관련이 되는 주관적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과 관련이 되는 자존감 및 우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계적 차원에서는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변수들인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적응, 부부갈등, 별거 혹은 이혼 가능성 예측, 부부 여가시간을 설정하였다. 세대적 차원은 자녀와 관련된 변수들을 채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정한 변수는 본인이 자녀를 원하는 정도, 배우자가 자녀를 원하는 정도, 입양 의향, 자녀에 대한 생각, 이상적 자녀수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무자녀 기혼자의 개략적인 면모를 파악해가는 양적 차원의 초동단계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무자녀 기혼자 집단 내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무자녀 기혼자의 '초상'을 스케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무자녀 가족의 내부적 성격 차이를 파악하고, 무자녀 가족 연구에서 무자녀 유형별 분석의 유용성을 탐색하며, 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부모됨과 무자녀 사이에서 확고한 결정을 하지 않은 연기형과 가장 관련이 깊음을 고려할 때, 연기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무자녀 기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무자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는 무자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무자녀 기혼자의 부부관계는 무자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무자녀 기혼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무자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무자녀 가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무자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이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인 무자녀 유형과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연관시켜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거의 부재하므로, 한국사회의 무자녀와 관련되어 발표된 기존 연구의 전반적 개요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전개하고자 한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자녀 지향과 그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 김한곤(1991)의 연구는 국내에서 무자녀의 연구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도된 거의 효시격이었다. 그 후 무자녀 연구들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2000년대 들어 시도되었다. 양성은(200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경험을 적는 프로토콜 서술(protocol writing)을 통해 문화기술적 의사결정모델에 의해 무자녀 가족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양성은의 2004년 연구를 발전시켜 외국에서 발표한 Yang과 Rosenblatt(2008)의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무자녀 비율이 상승하는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 가족가치와 무자녀의 문제를

연관시켜 다루고 있다. 프로토콜 서술을 통해 무자녀에 대한 인식에 접근해가는 이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여전히 유교적 영향권 하에 있었으며, 본인들은 자녀를 갖겠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여건 등의 상황적 조건이 악화됨으로써 유교적 가치가 고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이루어진 국내의 무자녀 관련 연구는 여성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다(권윤진, 2004; 김상수, 2006; 신은숙, 2005; 조준영, 2006). 권윤진(2004)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기혼여성의 선택을 ‘삶의 기획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신은숙(2005), 김상수(2006), 조준영(2006)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무자녀로 사는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삶은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끊임없는 갈등과 협상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무자녀 관련 연구로는 공미혜와 이수연(2012, 2013)의 연구, 김정미와 양성은(2013)의 연구, 이수현(2012a, 2012b)의 연구가 있다. 공미혜와 이수연(2012)은 무자녀 결정경험 연구에서 관련 요인으로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 부모됨에 대한 부담감, 개인적인 가치관, 양육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가치실현, 불임 등을 발견하였다. 이수현(2012a) 역시 무자녀 기혼여성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무자녀 가족을 형성하게 된 요인으로 개인적 성향 및 가치관, 사회경제적 환경을 지적하였다. 김정미와 양성은(2013)은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는 동기를 개인적 가치관, 원가족 경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자녀와 관련된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무자녀 유형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할 때도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특정한 무자녀 유형에 초점을 맞춘 국내 연구 중 자발형에 관한 국내 연구는 두 편(김정미·양성은, 2013; 조준영, 2006)이 발견되었을 뿐이지만, 비자발형 무자녀로 간주되는 불임 여성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의학적 성격의 연구를 제외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심리적 복지나 부부관계와 관련된 연구만 살펴보면, 불임 여성의 스트레스(김희경, 1999; 민소원 외, 2008; 박영주, 1995; 조행신 외, 1998), 우울(민소원 외, 2008; 이지화, 2013; 조행신 외, 1998), 삶의 질(김주희·신혜숙, 2013; 민소원 외, 2008), 결혼만족도(김경열, 2002; 황기아·정혜선, 2002)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인 불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강희선, 2004; 배경의·박춘화, 2007; 하정옥, 2008; 한혜실, 2003)도 있다.

이상의 국내 연구를 종합해 보면, 비자발형 무자녀인 불임 여성에 관한 간호학이나

의학 분야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압도적으로 무자녀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자녀 집단 내의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도 드물다. 그러나 무자녀 부부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여 무자녀 부부의 '초상'을 그려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무자녀 부부의 '초상'은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게 모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무자녀 여성 일변도의 국내 연구동향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지만, 부부에게 '자녀 없음'은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경험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자녀 남성을 포함한 계량적 연구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무자녀 가족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고찰

해외에서 무자녀의 심리적 복지나 부부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부모와 무자녀를 비교, 분석한 경우가 많다. 즉, 부모됨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자녀를 비교 집단으로 사용하거나, 무자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노년기 무자녀 집단을 유자녀와 비교한 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유자녀와 무자녀 집단을 비교하는 해외의 선행연구는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지위와 관계없이 '자녀 없음'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결혼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한국과는 달리 서구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가 되는 인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유자녀와 무자녀를 비교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유자녀와 무자녀는 심리적 복지나 부부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Callan, 1987; Evenson & Simon, 2005; Feldman, 1981; Koropecykj-Cox et al., 2007; Pudrovska, 2008; Somers, 1993). 자녀유무 그 자체보다는 유자녀 집단의 출산시기(Koropecykj-Cox et al., 2007), 무자녀 집단의 결혼지위와 성별(Kendig et al., 2001; Zhang & Hayward, 2001)이나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Koropecykj-Cox, 2002) 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가 다르다는 결과가 많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대해 Umberson 외(2010)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경험은 아니며 무자녀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무자녀 집단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무자녀 유형별로 심리적 복지나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 등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유자녀와 무자녀를 비교한 연구에 비해 소수이다. 무자녀의 유형이나 원인에 주목한 연구들은 무자녀 집단을 선택에 의한 '자발형'과 불임 등으로 인한 '비자발형' 두 가

지로 분류한 경우가 많다. McQuillan 외(2007)의 연구에서는 자발형 무자녀 여성이 비자발형 여성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Callan(1987)은 비자발형 무자녀 여성이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자발형 무자녀 여성보다 총체적인 심리적 복지 수준에서는 떨어지나, 결혼적응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불임에 의한 비자발형 무자녀 여성들은 자발형 무자녀 여성들에 비해 인생을 더 공허하고 덜 보상적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무자녀로 인한 시간적 여유를 지님으로 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휴식, 독립성 수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수차례 아이 갖기를 시도하고 좌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유대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유자녀 집단이나 자발형 무자녀 집단보다 결혼관계에 만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한편, 무자녀라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학자들은 무자녀 집단을 자발형과 비자발형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Letherby(2002)는 무자녀 여성을 이기적인 자발형과 불행한 비자발형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접근은 현실과 다르며, 자발형과 비자발형을 양 끝에 둔 연속선의 개념으로 무자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발형과 비자발형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서 자발형이나 비자발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직업 중심적인 연기형 여성들이 부모됨을 연기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임신 자체가 어려운 비자발형 무자녀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Hewlett, 2002; Kemkes-Grottenthaler, 2003). 따라서 무자녀를 일시적 무자녀와 영구적 무자녀로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Bloom & Pebley, 1982; Tanturri & Mencarini, 2008).

자발형과 비자발형으로 구분되는 무자녀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무자녀 집단 내의 다양성에 대해 보다 진지한 접근을 취한 학자들은 자녀가 없으나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집단, 즉 연기형에 주목하였다. <표 1>은 무자녀 집단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무자녀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들의 다양성에 주목한 초기 연구자인 Houseknecht(1979)는 일찍(예를 들어, 결혼 이전) 무자녀를 선택한 집단(early articulators)과 결혼 이후에 반복적으로 자녀 갖기를 연기한 집단(married postponers)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초기 연구 이후에도 연기형을 차별적인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Abma와 Martinez(2006)는 35-44세의 미국 무자녀 여성을 자발형, 일시형, 비자발형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분포와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발형 여성이 다른 두 집

단에 비해 고소득이고 직업경력이 많으며 종교가 덜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anturri와 Mencarini(2008)는 임신을 연기하다가 40세를 넘긴 여성들과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여성들을 비교한 결과, 부모됨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Heaton 외(1999)는 무자녀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지속성 또는 변화를 토대로 무자녀 집단 내 다양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연기형을 포함하였다.

<표 1> 해외 선행연구의 무자녀 유형 세부 분류

저자	연구대상	무자녀 유형 분류
Houseknecht (1979)	선택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고 있는 미국 기혼여성	<p><선택적 무자녀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찍(예, 결혼 이전) 무자녀를 선택한 집단(early articulators) ▪ 결혼 이후에 반복적으로 자녀 갖기를 연기한 집단(married postponers)
Abma & Martinez (2006)	35-44세 미국 무자녀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형 : 자녀가 없고, 자녀를 가질 생각도 없으나, 피임을 하지 않으면 임신이 가능함(시술 포함) ▪ 일시형 : 자녀가 없으나,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함 ▪ 비자발형 : 자녀가 없으며, 불임 판정을 받았거나 3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지속하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음
Tanturri & Mencarini (2008)	40-44세 무자녀 이탈리아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1 : 동거/결혼 경험 없음 ▪ 유형 2 : 동거/결혼 경험 있으며, 임신을 장기간 연기하다가 임신이 어려워짐 ▪ 유형 3 : 동거/결혼 경험 있으며, 제약 요인(신체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불안정한 관계 등)으로 인해 자녀가 없음 ▪ 유형 4 : 동거/결혼 경험 있으며, 자녀를 갖고자 자발적으로 시도하지 않음
Heaton et al. (1999)	19-39세 미국인 중 무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형 : W1(1988)에 자녀를 원한다고 하였고, W2(1994)에 자녀가 없음 ▪ 변경형 I(switch to childless) : W1에 자녀를 원한다고 하였으나, W2에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함 ▪ 지속형 : W1과 W2 모두 자녀가 없으며 자녀를 원하지 않음 ▪ 변경형 II(switch to parents or to wanting a child) : W1에 자녀를 원하지 않았으나 W2에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원함

이상과 같은 해외 선행연구를 토대로 보면 무자녀 기혼자를 이해하고자 할 때 무자녀 집단 내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자발형과 비자발형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 유

형을 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집단은 (1)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2) 자녀가 없고, (3) 50세 미만인 남성과 여성이었다. 여기서 자녀는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포함한 생물학적 자녀, 양자녀, 계자녀, 임신 중인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를 무자녀로 규정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신혼부부로 간주되는 부부 중 자녀가 없는 경우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자 결혼지속연수에 제한을 두었다. 신혼부부의 정의는 공공정책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에서 1순위로 규정된 자격자가 결혼한 지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부(국토해양부, 2009)인 것을 참고하였다. 50세 미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된 이유는 합계출산율 등에서 가입기를 49세까지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을 시도할 수 있는 연령대의 무자녀 기혼자에 한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무자녀 부부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등장한 것이 소위 ‘386세대’부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 무자녀 기혼자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유형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49세까지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방법은 할당표집을 사용하였다.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2010)에서 실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의 가구원 자료에서 연구대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직업군의 비율을 분석한 후, 이 비율과 유사한 비율로 성별, 연령대, 직업군을 비례배분하였다. 또한 무자녀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유형이 동일한 비율로 표집되도록 유의할당하였다.

무자녀 유형을 분류한 구체적인 방법은 <표 2>와 같다. 우선 과거에 자녀를 갖고자 시도한 경험이 있는지를 토대로 경험이 없는 경우는 그 이유를 토대로 분류하였고,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현재도 자녀를 갖고자 시도하는 지 여부와 현재는 자녀 갖기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를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2>와 같은 분류체계는

Tanturri와 Mencarini (2008)가 40-44세 이탈리아 무자녀 여성 859명의 자료를 토대로 무자녀가 된 경로를 도식화한 결과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Tanturri와 Mencarini의 무자녀 경로 중 첫 단계인 동거 또는 결혼 경험 유무는 생략하였고, 대신 Tanturri와 Mencarini의 경로에 자녀를 갖고자 시도한 경험이 없는 이유, 자녀를 갖고자 시도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시도하지 않는 이유 등을 보완하였다. 예를 들어 무자녀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변화한다는 Heaton 외(1999)의 연구를 참고하여 과거에는 임신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

<표 2> 무자녀 유형 분류

자녀 갖기 시도 경험이 없는 이유		무자녀 유형	
자녀 갖기 시도 경험 없음	자녀 갖기를 원하지 않아서	자발형	
	당분간 자녀 갖기를 연기하고 있어서	연기형	
	자녀 갖기를 원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문제 때문에	비자발형	
	자녀 갖기를 원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비자발형	
현재 자녀 갖기 시도 여부 및 시도하지 않는 이유			
자녀 갖기 시도 경험 있음	현재도 시도함	비자발형	
	현재 자녀를 갖고자 시도하지 않음	과거에는 자녀를 원했으나 현재를 원하지 않음	자발형
		불임으로 판정받았거나 의심됨	비자발형
		원인 미상이나 오랫동안 임신이 되지 않음	비자발형

자료의 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2년 12월에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으며, 본조사는 2013년 1월과 2월에 걸쳐 전문리서치 회사를 통해 훈련된 면접원이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53부의 질문지를 회수하였고, 부부가 모두 응답한 9쌍의 경우 개별 측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편 9명의 응답을 제외한 총 544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과 무자녀 유형을 할당표집하였기 때문에 남성(49.45%)과 여성(50.55%)이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무자녀 유형도 자발형(33.46%), 비자발형(32.90%), 연기형(33.64%)이 유사한 비율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35.94

세(범위: 24-49세)였는데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39.15%), 이어 40대(33.64%), 20대(27.21%)의 순이었다. 배우자의 연령은 평균 36.06세(범위: 25-57세)이었고 결혼지속연수는 평균 5.57년(범위: 3-23년)이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졸업 및 재학)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47.98%)을 차지하였고 고졸 이하(28.86%), 전문대(20.40%)의 순이었다. 배우자의 교육수준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종교는 무교(61.21%)의 비율이 높았고 이어 기독교(25.18%), 천주교(8.82%), 불교(4.78%)의 순이었다. 주관적 계층은 중류층(44.67%)과 중하류층(40.44%)의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건강한 편이라고 지각하였고(평균 3.87, 범위: 1-5), 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조금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평균 2.80, 범위: 1-5), 33.04%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9.49%, 배우자의 82.90%가 취업 상태였으며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취업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소득은 200만원대(38.62%)와 300만원대(31.75%)의 비율이 높았으며 배우자의 소득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544)

	N(%) 또는 M		N(%) 또는 M
성별		무자녀 유형	
남	269(49.45)	자발형	182(33.46)
여	275(50.55)	비자발형	179(32.90)
		연기형	183(33.64)
본인 연령 (범위: 24-49세)	M = 35.94	배우자 연령 (범위: 25-57세)	M = 36.06
20대	148(27.21)	20대	101(18.57)
30대	213(39.15)	30대	259(47.61)
40대	183(33.64)	40대	169(31.06)
		50대	15(2.76)
본인 교육수준		배우자 교육수준	
고졸 이하	157(28.86)	고졸 이하	142(26.10)
전문대(재학 포함)	111(20.40)	전문대(재학 포함)	119(21.88)
4년제 대학(재학 포함)	261(47.98)	4년제 대학(재학 포함)	261(47.98)
대학원(재학 포함)	15(2.76)	대학원(재학 포함)	22(4.04)
종교		주관적 계층	
기독교	137(25.18)	하층	38(6.99)
천주교	48(8.82)	중하류층	220(40.44)
불교	26(4.78)	중류층	243(44.67)
무교	333(61.21)	중상류층	43(7.90)

	<i>N</i> (%) 또는 <i>M</i>		<i>N</i> (%) 또는 <i>M</i>
주관적 건강 (범위: 1-5점)	<i>M</i> = 3.87	부부소득 적정성 (범위: 1-5점)	<i>M</i> = 2.80
자가소유 여부		결혼지속연수 (범위: 3-23년)	<i>M</i> = 5.57
자가	149(33.04)	3-4년	355(65.26)
전세/월세/기타	302(66.92)	5-9년	110(20.22)
		10-14년	49(9.01)
		15년 이상	30(5.51)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없음	166(30.51)	없음	93(17.10)
관리자	30(5.51)	관리자	13(2.3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6(8.4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8(5.15)
사무 종사자	155(28.49)	사무 종사자	244(44.85)
서비스 종사자	60(11.03)	서비스 종사자	69(12.68)
판매 종사자	41(7.54)	판매 종사자	66(12.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2.9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1.8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1.8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1.65)
단순노무종사자	20(3.68)	단순노무종사자	10(1.84)
		기타	2(0.37)
본인 소득(<i>n</i> = 378)		배우자 소득(<i>n</i> = 451)	
200만원 미만	44(11.64)	200만원 미만	95(21.06)
200-299만원	146(38.62)	200-299만원	170(37.69)
300-399만원	120(31.75)	300-399만원	131(29.05)
400-499만원	42(11.11)	400-499만원	43(9.53)
500만원 이상	26(6.89)	500만원 이상	12(2.66)

2. 측정도구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무자녀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결혼지속 연수, 본인 교육수준, 배우자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 주관적 계층, 부부소득 적정성, 본인 소득, 배우자 소득, 종교의 중요도, 맞벌이 여부, 자가 소유 여부의 11가지 특성이었다. 결혼지속연수는 연속변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하' 1에서부터 '박사 및 박사과정 졸업/재학'을 5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계층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하층' 1에서부터

‘상류층’ 5까지로 코딩한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소득적정성은 ‘부부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여 ‘매우 부족하다’ 1점에서부터 ‘매우 충분하다’ 5점까지의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월평균 소득(세금공제 이전 금액)을 질문하여 ‘소득 없음’ 1에서부터 ‘800만원 이상’ 18까지 50만원 급간으로 측정하여 코딩한 결과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종교의 중요도는 ‘삶에서 종교가 갖는 중요도’를 질문하여 ‘종교 없음’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0점에서부터 ‘매우 중요함’ 10점까지인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 1과 ‘홀벌이’ 0으로 코딩한 이분변수였으며, 자가 소유 여부 역시 ‘자가’ 1과 ‘전세, 월세, 기타’ 0으로 코딩한 이분변수였다.

2) 심리적 복지 특성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는 주관적 행복도, 생활만족도, 자존감, 우울의 4가지 특성이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귀하는 요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매우 불행함’ 0점에서부터 ‘매우 행복함’ 10점까지 중 한 가지 숫자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생활만족도는 Pavot과 Diener(1993)의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89였다.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10개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부정적 진술은 역산을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10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65였다. 우울은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Scale, Radloff, 1977)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20가지 증상을 경험했는지를 ‘드물게/없음’ 1점에서부터 ‘대부분/항상’ 4점 사이로 응답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우울 증상을 경험함을 의미한다. 20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은 .84로 나타났다.

3) 부부관계 특성

무자녀 유형별 부부관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는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적응, 별거 혹은 이혼 가능성 예측, 부부 여가시간의 5가지 특성이었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현재 부부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한다' 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부적응은 32문항으로 이루어진 Spanier(1976)의 Dyadic Adjustment Scale(DAS)의 한국판 단축형 척도를 타당화한 조현 외(2011)의 연구에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 10문항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DAS는 부부만족, 부부응집성, 부부동의 및 애정표현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별로 응답가능한 점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다. 단축형 부부적응 척도는 0점부터 4점 사이에서 응답하는 문항 1개, 0점부터 5점 사이에서 응답하는 문항 8개, 0점부터 6점 사이에서 응답하는 문항 1개로 구성되었으며, Spanier가 제시한 대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였다. 10개 문항의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적응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81이었다. 별거 또는 이혼 가능성 예측은 '배우자와 별거 또는 이혼할 가능성이 어떠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매우 낮다' 1점에서부터 '매우 높다' 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부 여가시간은 지난 6개월간 배우자와 함께 보낸 일상적인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분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당 평균 평일 여가시간(평일 여가시간 $\times$ 5 + 휴일 여가시간 $\times$ 2)을 7로 나눈 하루 평일 여가시간을 구한 후 이를 60으로 나눈 시간 단위 값을 사용하였다.

4) 자녀에 대한 태도 특성

무자녀 유형별 자녀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변수는 본인이 자녀를 원하는 정도, 배우자가 자녀를 원하는 정도, 입양의향, 자녀에 대한 생각, 이상적 자녀수의 5가지 특성이었다. 자녀를 원하는 정도는 '현재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자녀 갖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각각에 대해 '전혀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매우 자녀를 원한다' 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입양의향 '향후 입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녀에 대한 생각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 사용한 8문항을 사용하였다. 자녀에 대한 8가지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점에서부터 ‘전적으로 찬성한다’ 4점 사이에서 응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내용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가 제약되지는 않는다’ 등이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는 없다’의 1개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8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은 .69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자녀수는 ‘귀하가 생각하시는 이상적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라는 단일질문에 대해 직접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 특성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와 같은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무자녀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 Tukey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만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범주형 변수인 맞벌이 여부와 자가 소유 여부에 대한 무자녀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먼저, 심리적 복지를 보면, 주관적 행복도($M = 7.27$)는 가능한 점수범위(0-10점)의 중간을 상회하여 높은 편이다. 또한, 생활만족도($M = 4.45$)와 자존감($M = 2.86$)에서는 모두 가능한 점수범위의 중간 이상(생활만족도: 1-7점, 자존감: 1-4점)이었다. 우울($M = 1.65$)은 가능한 점수범위(1-4점)의 중간 이하로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무자녀 기혼자는 대체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부부관계를 보면, 부부관계 만족도($M = 3.79$), 부부적응($M = 3.39$)은 모두 가능한 점수범위(부부관계 만족도: 1-5점, 부부적응: 0-5점)의 중간 이상이었다. 또한, 별거/이혼 가능성 예측($M = 1.71$)은 가능한 점수범위(1-5점)의 중간보다 낮은 편으로, 별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2.69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무자녀 기혼자는 전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는 본인이 자녀를 원하는 정도($M = 3.29$)와 배우자가 자녀를 원하는 정도($M = 3.26$)가 가능한 점수범위(1-5점)의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입양 의향($M = 1.76$)은 가능한 점수범위(1-5점)의 중간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입양할 의향이 높지 않았으며, 자녀에 대한 생각($M = 2.81$)은 가능한 점수범위(1-4점)의 중간보다 조금 높았다. 이상적 자녀수는 1.81명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무자녀 기혼자는 어느 정도 자녀를 원하고 있으며, 입양 의향은 다소 떨어지고, 자녀관은 약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
($N = 544$)

변수		가능 점수범위	$M(SD)$
심리적 복지	주관적 행복도	0-10	7.27(1.33)
	생활만족도	1-7	4.45(.95)
	자존감	1-4	2.86(.31)
	우울	1-4	1.65(.32)
부부관계	부부관계 만족도	1-5	3.79(.59)
	부부적응	0-5	3.39(.55)
	별거/이혼 가능성 예측	1-5	1.71(.80)
	부부 여가시간(시간)		2.69(1.12)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를 원하는 정도: 본인	1-5	3.29(.98)
	자녀를 원하는 정도: 배우자	1-5	3.26(1.03)
	입양 의향	1-5	1.76(.78)
	자녀에 대한 생각	1-4	2.81(.39)
	이상적 자녀수(명)		1.81(.57)

2. 무자녀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무자녀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는 <표 5>와 같다. 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의 세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결혼지속연수($F = 16.06, p < .001$), 주관적 건강($F = 3.22, p < .05$), 부부소득 적정성($F = 3.27, p < .05$), 배우자 소득($F = 8.36, p < .001$), 종교의 중요도($F = 11.20, p < .001$), 맞벌이 여부($\chi^2 = 14.30, df = 2, p < .001$), 자가 소유 여부($\chi^2 = 19.77, df = 2, p < .001$)였다. Tukey 방식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자발형($M = 6.79$)이 결혼한 지 가장 오래되었고, 자발형($M = 5.30$)과 연기형($M = 4.57$)의 결혼지속연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건강은 연기형($M = 3.95$)이 가장 높았고 비자발형($M = 3.77$)이 가장 낮았다. 부부소득의 적정성은 비자발형($M = 2.90$)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였고 연기형($M = 2.69$)이 가장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배우자의 소득수준 역시 비자발형($M = 7.70$)이 가장 높았고 자발형($M = 6.82$)과 연기형($M = 6.94$)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종교의 중요도는 비자발형($M = 3.91$)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였고 자발형($M = 2.25$)과 연기형($M = 2.46$)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맞벌이 여부는 연기형에서 홀벌이가 높은 비율(63.93%)로 나타나며, 자가 소유 여부는 연기형에서 자가 소유하지 않고 전세/월세/기타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75.96%)로 나타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본인 교육수준, 배우자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 본인 소득에서는 유의한 집단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5> 무자녀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N = 544$)

	자발형 ($n = 182$)	비자발형 ($n = 179$)	연기형 ($n = 183$)	<i>F</i>
	<i>M</i> (<i>SD</i>)	<i>M</i> (<i>SD</i>)	<i>M</i> (<i>SD</i>)	
결혼지속연수	5.30(3.50)a	6.79(4.73)b	4.57(2.97)a	16.06***
본인 교육수준	2.20(.91)	2.20(.97)	2.36(.86)	1.83
배우자 교육수준	2.31(.93)	2.25(.92)	2.34(.88)	.48
주관적 건강	3.82(.68)ab	3.77(.73)a	3.95(.63)b	3.22*
주관적 계층	2.59(.77)	2.59(.73)	2.43(.71)	2.70
부부소득 적정성	2.85(.84)ab	2.90(.80)b	2.69(.81)a	3.27*
본인 소득	7.95(2.60)	7.78(2.16)	7.47(1.84)	1.59

	자발형 (n = 182)	비자발형 (n = 179)	연기형 (n = 183)	F
	M(SD)	M(SD)	M(SD)	
배우자 소득	6.82(1.97)a	7.70(2.15)b	6.94(1.94)a	8.36***
종교의 중요도	2.25(3.48)a	3.91(3.89)b	2.46(3.49)a	11.20***
	n(%)	n(%)	n(%)	$\chi^2(df)$
맞벌이 여부				
홀벌이	86(47.25)	83(46.37)	117(63.93)	14.30(2)***
맞벌이	96(52.75)	96(53.63)	66(36.07)	
자가 소유 여부				
자가	65(35.71)	83(46.37)	44(24.04)	19.77(2)***
전세/월세/기타	117(64.29)	96(53.63)	139(75.96)	
계	182(100)	179(100)	183(100)	

주: 평균 옆에 표기한 영문 소문자는 일원분산분석에 대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임.

* $p < .05$. *** $p < .001$.

3.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무자녀 유형별로 주관적 행복도($F = 3.03, p < .05$), 생활만족도($F = 6.81, p < .01$), 자존감($F = 3.65, p < .05$), 우울($F = 4.66, p < .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ukey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적 행복도는 연기형($M = 7.38$)이 가장 높았고 비자발형($M = 7.04$)이 가장 낮았다. 생활만족도는 자발형($M = 4.62$)과 연기형($M = 4.53$)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비자발형($M = 4.26$)이 가장 낮았다. 자존감은 연기형($M = 2.90$)이 가장 높았고 비자발형($M = 2.81$)이 가장 낮았다. 우울은 비자발형($M = 1.69$)이 가장 높았고 연기형($M = 1.59$)이 가장 낮았다. 즉 세 집단 중 비자발형은 연기형에 비하여 주관적 행복도, 자존감이 낮았고 우울은 높았으며, 생활만족도에서는 다른 두 유형보다 낮았다.

<표 6> 무자녀 유형별 심리적 복지의 차이

(N = 544)

	자발형 (n = 182)	비자발형 (n = 179)	연기형 (n = 183)	F
	M(SD)	M(SD)	M(SD)	
주관적 행복도	7.27(1.27)ab	7.04(1.42)a	7.38(1.24)b	3.03*
생활만족도	4.62(.98)b	4.26(1.05)a	4.53(.81)b	6.81**
자존감	2.85(.31)ab	2.81(.33)a	2.90(.27)b	3.65*
우울	1.63(.33)ab	1.69(.36)b	1.59(.26)a	4.66**

주: 평균 옆에 표기한 영문 소문자는 일원분산분석에 대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임.

* p < .05. ** p < .01.

4. 무자녀 유형별 부부관계

무자녀 유형별 부부관계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무자녀 유형별로 부부관계 만족도(F = 10.92, p < .001), 부부적응(F = 15.20, p < .001), 별거/이혼 가능성 예측(F = 6.43, 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Tukey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관계 만족도는 연기형(M = 3.93)이 가장 높았고, 자발형(M = 3.68)과 비자발형(M = 3.72)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부부적응 역시 연기형(M = 3.57)이 가장 높았고 자발형(M = 3.29)과 비자발형(M = 3.31)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별거 또는 이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발형(M = 1.85)과 비자발형(M = 1.84)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연기형(M = 1.58)이 별거/이혼 가능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즉 연기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적응 수준이 높았고, 별거 또는 이혼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였다. 부부 여가시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무자녀 유형별 부부관계의 차이

(N = 544)

	자발형 (n = 182)	비자발형 (n = 179)	연기형 (n = 183)	F
	M(SD)	M(SD)	M(SD)	
부부관계 만족도	3.68(.62)a	3.72(.60)a	3.93(.48)b	10.92***
부부적응	3.29(.54)a	3.31(.56)a	3.57(.51)b	15.20***
별거/이혼 가능성 예측	1.85(.81)b	1.84(.88)b	1.58(.70)a	6.43**
부부 여가시간(시간)	2.62(1.08)	2.77(1.21)	2.66(1.06)	.79

주: 평균 옆에 표기한 영문 소문자는 일원분산분석에 대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임.

** p < .01. *** p < .001.

5. 무자녀 유형별 자녀에 대한 태도

무자녀 유형별 자녀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무자녀 유형별로 본인이 자녀를 원하는 정도($F = 30.38, p < .001$), 배우자가 자녀를 원하는 정도($F = 33.26, p < .001$), 입양 의향($F = 20.04, p < .001$), 자녀에 대한 생각($F = 10.89, p < .001$), 이상적 자녀수($F = 14.42, p < .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ukey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를 원하는 정도는 세 집단 중 비자발형(본인 $M = 3.66$; 배우자 $M = 3.67$)이 가장 높았고, 연기형(본인 $M = 3.20$; 배우자 $M = 3.20$)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자발형(본인 $M = 2.91$; 배우자 $M = 2.84$)이 가장 낮았다. 입양 의향은 세 집단 중 비자발형($M = 2.01$)이 가장 높았고, 자발형($M = 1.79$)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연기형($M = 1.51$)이 가장 낮았다. 자녀에 대한 생각은 비자발형($M = 2.86$)과 연기형($M = 2.85$)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발형($M = 2.70$)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상적 자녀수 역시 비자발형($M = 1.94$)과 연기형($M = 1.83$)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발형($M = 1.63$)이 생각한 이상적 자녀수가 가장 적었다.

<표 8> 무자녀 유형별 자녀에 대한 태도의 차이

($N = 544$)

	자발형 ($n = 182$)	비자발형 ($n = 179$)	연기형 ($n = 183$)	F
	$M(SD)$	$M(SD)$	$M(SD)$	
자녀를 원하는 정도: 본인	2.91(.95)a	3.66(.98)c	3.20(.86)b	30.38***
자녀를 원하는 정도: 배우자	2.84(.95)a	3.67(1.02)c	3.20(.94)b	33.26***
입양 의향	1.79(.78)b	2.01(.86)c	1.51(.62)a	20.04***
자녀에 대한 생각	2.70(.39)a	2.86(.36)b	2.85(.38)b	10.89***
이상적 자녀수	1.63(.56)a	1.94(.55)b	1.83(.54)b	14.42***

주: 평균 옆에 표기한 영문 소문자는 일원분산분석에 대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임.

*** $p < .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 무자녀의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한 지 3년이 경과한 만 50세 미만의 남녀 54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녀 기혼자는 대체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한 편이며,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본 연구가 해외의 많은 선행연구들처럼 자녀를 가진 부모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없으므로 해서 심리적 복지가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혹은 이에 미치는 자녀의 영향력의 크기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다. 하지만 미비한 수준에서나마 본 연구의 가능한 점수범위로 고려해 볼 때, 무자녀라고 해서 주관적 행복도, 생활만족도, 자존감이 낮고 우울감은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히 자녀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비자발형을 포함해서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무자녀 기혼자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발형을 중심으로 한 무자녀 기혼자가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기적인’ 자발형 무자녀 여성과 ‘간절한’ 비자발형 무자녀 여성으로 양분되는 고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한 Letherby(2002)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둘째, 무자녀 유형별로 결혼지속연수, 주관적 건강, 부부소득 적정성, 배우자소득, 종교의 중요도, 맞벌이 여부, 자가 소유 여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무자녀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이와 같은 작업은 무자녀 유형이 갖는 차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전초적인 성격을 갖는다. 대략적으로, 비자발형이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들은 결혼지속연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비자발형은 부부소득 적정성, 배우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 소유 여부에서도 다른 두 유형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가를 소유한 비율이 높다. 비자발형이 자발형이나 연기형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비자발형이 결혼생활을 상대적으로 오래 하면서 경제적 자원을 축적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여건이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부모됨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무자녀가 되기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연기형이 부부소득 적정성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자가를 소유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는 이 집단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됨을 연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비자발형에 비해 자발형 및 연기형에서 종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는 대부분의 종교가 임신 및 출산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교를 덜 중요하게 여길 경우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하거나 부모됨을 연기하는데 심리적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닌지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무자녀 유형별로 심리적 복지, 즉 주관적 행복도, 생활만족도, 자존감, 우울은

모두 차이가 있다. 주목할 사실은 세 집단 중 비자발형이 연기형에 비하여 주관적 행복도, 자존감은 낮고 우울은 높으며, 생활만족도에서는 비자발형이 자발형과 연기형 두 집단보다 낮다는 것이다. 무자녀 유형 안에서도 비자발형이 두드러지게 심리적 복지가 낮다는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통념이나 해외 선행연구의 결과(McQuillan et al., 2007)를 뒷받침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 유형의 무자녀 집단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당연시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후의 보다 정교하고도 섬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수긍한다면, 비자발형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의 모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무자녀 유형별로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적응, 별거/이혼 가능성 예측에서 모두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시선을 끄는 것은 연기형이다. 본 연구에서 연기형은 자발형, 비자발형 등 다른 두 유형보다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적응 점수가 높고, 별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각한다. 이렇게 연기형의 부부관계가 다른 두 유형보다 뚜렷하게 긍정적이라는 결과를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 추론하기는 어렵다. 연기형 중에 결혼 지속연수가 짧은 경우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연기형과 자발형의 결혼 지속연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연기형의 결혼지속연수가 자발형보다도 짧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형별 부부관계의 경향 중 연기형의 표준편차가 자발형이나 비자발형에 비해 작은 것(<표 7> 참조)을 통해 다소나마 해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즉 연기형의 부부관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반면, 자발형이나 비자발형은 집단 내 다양성이 크고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동일한 무자녀 기혼자의 자료를 분석한 Sung 외(2013)의 연구에서도 자발형은 연기형에 비해 부부소득 적정성이나 부부만의 시간 빈도에 따라 부부관계 만족도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의 부부관계는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다섯째, 무자녀 유형별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녀를 원하는 정도, 입양 의향, 자녀에 대한 생각, 이상적 자녀수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를 원하는 정도는 세 집단 중 비자발형이 가장 높고 자발형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자녀를 원하지 않으며 자녀를 갖고자 시도할 의향이 없는 자발형과 자녀를 갖고자 시도해 보았으나 이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비자발형의 분류 기준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세 집단 중 비자발형의 입양 의향이 가장 높은 점도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양 의향은 연기형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

된 연기형이 향후 경제적 여건 등이 개선되면 부모가 되는 선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짚어보았던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한편 자발형은 다른 두 무자녀 유형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생각이 덜 긍정적이고 이상적 자녀수도 적은 편인데, 이는 그들이 자의적 선택에 의해 무자녀 상황을 선택했고,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자녀관이나 이상적 자녀수와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의 세 가지 무자녀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면, 자발형은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두드러져서, 본인 및 배우자가 자녀를 원하는 정도가 가장 낮고 자녀에 대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며 이상적 자녀수가 가장 낮다. 자발형의 부부관계는 비자발형과 유사한 수준이다. 비자발형은 심리적 복지 수준이 가장 낮고, 부부관계는 자발형과 유사한 수준이며, 자녀 관련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다. 비자발형은 세 유형 중 결혼지속연수가 가장 길고 종교를 가장 중요하며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연기형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복지 수준에서는 자발형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부부소득 적정성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자가를 소유한 비율이 가장 낮다. 연기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부부관계가 세 유형 중 가장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연기형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발형보다는 긍정적이지만 비자발형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성과는 무자녀 유형별로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세대적 차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무자녀 집단 내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집단 별 차이를 알아본 본 연구의 접근이 무자녀 기혼자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무자녀 관련 선행연구들이 연기형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서 연기형을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연기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복지는 자발형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부부관계가 긍정적이며, 자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자발형과 비자발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였다. 즉, 연기형이 자발형이나 비자발형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차별적인 특성도 있음을 밝힘으로써 연기형을 별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 유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기형의 차별성에 대해 Tanturri와 Mencarini(2008)는 이탈리아 무자녀 여성의 경우 부모됨의 비용과 제약에 초점을 맞추는 자발형과는 달리, 연기형은 자녀가 없는 부부 두 사람만의 삶을 일정 시간 갖기를 원해서 무자녀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연기형 무자녀는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됨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기형 무자녀는 가임기의 생물학적 연령에 제약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가임기 이후에는 연기형이 될 수 없으므로, 자발형이나 비자발형과는 달리 일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연기형은 향후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자발형이 될 수도 있으며, 자녀를 갖고자 시도하지만 연령이 많아서 임신과 출산이 어려워지는 비자발형이 될 수도 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연기형은 전문직 여성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Abma & Martinez, 2006) 이들 중 일부는 고령 등의 문제로 중국에는 비자발형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Hewlett, 2002; Kemkes-Grottenthaler, 2003). 그러나 본 연구의 연기형은 이와는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닌 집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연기형은 결혼지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고 소득 적정성이나 주택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집단임을 감안해 보면, 그들은 단순히 출산을 유보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향후 자발적 유형으로 편입되거나 부모가 되는 선택을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기형 무자녀 집단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들이 향후 자발형이나 비자발형 무자녀 집단으로 이동하는 지 혹은 부모가 되는지 대한 종단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자녀 기혼 남녀를 모두 포함한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무자녀 부부의 전반적이고 개략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무자녀 기혼자를 자발형, 비자발형, 연기형으로 분류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 심리적, 복지,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 차원에서 세 집단이 차별적임을 밝힘으로써 한국 무자녀 부부를 이해할 때 무자녀 유형을 고려가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자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유형별 차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무자녀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들이 왜 무자녀가 되며 무자녀 여성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 위주의 국내 선행연구를 보완,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표집 및 일반화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하였으므로 이를 벗어난 지역의 무자녀 부부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집방법인 할당표집이 편의표집보다는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비확률표집 방법의 하나이므로 일반화에 제약이 있다. 추후 이를 보완하여 보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표집을 실시하거나 확률표집을 사용하는 대규모 조사에 무자녀 기혼자를 고려한 문항을 적극적으로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표집 및 일반화 측면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자녀 부부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기준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무자녀 집단과 유자녀 집단을 비교하는 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무자녀 집단 내의 다양성에 관심을 두고 무자녀 부부의 '초상'을 그리는데 초점을 둔 연구이다. 그러나 연기형과 같이 향후 자녀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집단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녀가 있는 집단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자녀 기혼자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자발형, 연기형, 비자발형과 비교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무자녀 기혼자에게 접근해갈 때도 각 유형집단별 내부적 속성의 차이를 중심으로 실천적 개입을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자녀 가족의 현실 파악과 규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하고, 또 무자녀 가족을 다양한 가치와 선택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책의 한 대상으로 포섭해가는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무자녀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오늘날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부모됨을 지연하고 있는 연기형 무자녀는 정책적 지원에 따라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너무 늦게 부모가 되고자 시도하여 어쩔 수 없이 무자녀로 남을 수도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본 연구에 따르면 연기형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소득적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자가 소유의 비율이 낮아 불안정한 주거 여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자녀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연기형 집단은 경제적 여건이나 주택 문제가 개선되면 부모가 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모가 될 의향이 있는 연기형 집단이 더 이상 출산을 연기할 필요가 없는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원했으나 자녀가 없고 심리적 복지의 수준이 가장 낮은 비자발형 무자녀 집단이 보다 만족스럽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개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학문적 차원에서 아직까지 초보적 수준에 있는 무자녀관련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엄밀하고도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의 무자녀 가족에 관한 과학적인 경험 자료가 제공되고 축적되는 것이 시급하다. 앞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다루지 못한 수많은 문제의식을 다루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무자녀 관련 후속연구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강희선. 2004. “여성의 불임 경험 -체외수정 실패 경험자를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2): 119-127.
- 공미혜·이수연. 2012. “무자녀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경험.” 『가족과 문화』 24(2): 39-63.
- 공미혜·이수연. 2013. “무자녀 기혼여성의 낙인 대응전략을 통한 정체성 재정립.” 『여성학논집』 30(1): 129-159.
- 국토해양부. 2009. 『보금자리주택 정책개요』.
- 권윤진. 2004. “삶의 기획과정으로서의 ‘아이없음(childlessness)’에 관한 연구: 아이 없는 기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경열. 2002. “불임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상수. 2006. “무자녀가족 내 여성의 대응적 삶에 관한 연구: 30대 기혼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정미·양성은. 2013.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79-95.
- 김주희·신혜숙. 2013. “불임 여성의 삶의 질 모형 구축.” 『대한간호학회지』 43(3): 312-320.
- 김한곤. 1991. “기혼여성의 무자녀지향과 그 결정인자에 관한 연구: 1966-1985.” 『영남대새마을지역개발연구』 11: 219-233.
- 김희경. 1999. “불임 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불임 스트레스.”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1): 30-42.
- 민소원·김영혜·조영란. 2008. “불임여성의 스트레스,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3): 19-32.
- 박영주. 1995. “불임 여성의 불임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209-221.
- 배경의·박춘화. 2007. “불임여성의 인공수정 경험.” 『질적연구』 8(2): 23-35.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545-01, 정책보고서 2009-83)』.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은숙. 2005. “제도적 모성에 대한 갈등과 협동과정으로서의 저출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양성은. 2004.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른 대학생들의 무자녀가족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49-159.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발간등록번호11-1383000-000035-01, 연구보고 2010-15』. 서울: 여성가족부.
- 이수현. 2012a. “무자녀 가족 정체성 형성의 경험과 인식 : 외적 반응과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수현. 2012b.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43-88.
- 이지화. 2013. “불임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색과 심리사회적 개입의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준영. 2006. “자발적 무자녀 여성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행신·정상근·류철희·황익근. 1998. “불임여성에서 스트레스 지각, 대처방식, 우울 및 불안.” 『신경정신의학』 37(3): 422-429.
- 조현·최승미·오현주·권정혜. 2011. “한국판 부부갈등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55-670.
- 하정옥. 2008. “정상성의 경계 재구성하기 : 구술생애사로 살펴본 30대 여성의 불임 경험.” 『페미니즘 연구』 8(2): 117-156.
- 한혜실. 2003. “근거이론 접근에 의한 여성의 불임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황기아·정혜신. 2002. “불임주부의 스트레스·디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논문집』(동아대) 10: 83-107.
- Abma, J. C. and G. M. Martinez. 2006. “Childlessness among Older Women in the United States: Trends and Profi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1045-1056.
- Bloom, D. E. and A. R. Pebley. 1982. “Voluntary Childlessness: A Review of Evidence and Implication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1: 203-224.
- Callan, V. R. 1987. “The Personal and Marital Adjustment of Mothers and of Voluntarily and Involuntarily Childless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47-856.
- Evenson, R. J. and R. Simon. 2005.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hood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 341-358.

- Feldman, H. 1981. "A Comparison of Intentional Parents and Intentionally Childless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593-600.
- Gillespie, R. 2003. "Childfree and Feminine: Understanding the Gender Identity of Voluntary Childlessness Women." *Gender and Society* 17: 122-136.
- Heaton, T. B., C. K. Jacobson and K. Holland. 1999. "Persistence and Change in Decisions to Remain Childl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531-539.
- Hewlett, S. 2002. *Creating a Life: Professional Women and the Quest for Children*. New York: Talk Miramax Books.
- Houseknecht, S. K. 1979. "Timing of the Decision to Remain Voluntarily Childless: Evidence for Continuous Socializ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 81-96.
- Kemkes-Grottenthaler, A. 2003. "Postponing or Rejecting Parenthood?: Result of a Survey among Female Academic Professionals."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35: 213-226.
- Kendig, H., P. A. Dykstra, R. I. van Gaalen, and Melkas. T. 2007. "Health of Aging Parents and Childless Individuals." *Journal of Family Issues* 28: 1457-1486.
- Koropecykj-Cox, T. 2002. "Beyond Parental Status: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and Old 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57-971.
- Koropecykj-Cox, T., A. M. Pienta, and T. H. Brown. 2007. "Women of the 1950s and the 'Normative' Life Course: The Implications of Childlessness, Fertility Timing, and Marital Statu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in Late Mid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4: 299-330.
- Letherby, G. 2002. "Childless and Bereft?: Stereotypes and Realities in Relation to 'Voluntary' and 'Involuntary' Childless and Womanhood." *Sociological Inquiry* 72: 7-20.
- McQuillan, J., A. L. Greil, K. M. Shreffler, P. A. Wonch-Hill, K. C. Gentzler, and J. D. Hathcoat. 2012. "Does the Reason Matter? : Variations in Childlessness Concerns among U.S.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4: 1166-1181.
- McQuillan, J., R. A. T. Stone, and A. L. Greil. 2007. "Inferti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28: 955-981.

- Pavot, W. and E. Diener.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Pudrovska, T. 2008.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Motherhood and Fatherhood in Midlife: Evidence from Sibling Model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 168-181.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combe, K. 1991. "Asses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Children: Gender Comparisons among Childfree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91-202.
- Somers, M. D. 1993. "A Comparison of Voluntarily Childfree Adults an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43-650.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 Sung, M., J. Lee and Y. S. Choi. "Childless Marriages and Marital Conflict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75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San Antonio, TX (2013. 11. 6).
- Tanturri, M. L. and Mencarini, L. (2008). Childless or Childfree? Paths to Voluntary Childlessness in Ita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4: 51-77.
- Umberson, D., T. Pudrovska, and C. Reczek. 2010. "Parenthood, Childlessness, and Well-Being: A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3): 612-629.
- Yang, S., and P. C. Rosenblatt. 2008. "Confucian Family Values and Childless Couples in South Korea." *Journal of Family Issues* 29: 571-591.
- Zhang, X. and M. Hayward. 2001. "Childlessness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6: S311-S320.

(2014. 01. 25. 접수. 2014. 02. 21. 심사, 2014. 03. 24. 채택)

Abstract

Portraits of Childless Couples in South Korea I : Psychological Well-Being, Couple Relationships,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by Types of Childlessness

Choi, Younshil, Sangmyung University

Sung, Miai,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Lee, Jaer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psychological well-being, couple relationships,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differed among the three categories of childless married Koreans. The three categories were voluntary, involuntary, and postponing childless groups. In this study, *psychological well-being* included subjective happines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couple relationships* included marital satisfaction, dyadic adjustment, perceived likelihood of separation or divorce, and the couple's leisure time;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included one's aspirations for having a child, the spouse's aspirations for having a child, intention to adopt, attitudes toward parenthood, and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Data came from 544 childless Koreans who had been married for at least three years, aged 49 years or younger, and lived in metropolitan Seoul. W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and chi-squared tests to examine the differences among the voluntary, involuntary, and postponing groups.

Overall, childless married Koreans reported modestly higher levels of psychological well-being, couple relationships,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Some of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e., years of marriage, subjective health, perceived income sufficiency, spouse's income, religiosity, having dual incomes, homeownership) differed among the three childless group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we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subjective happines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the three groups. For couple relationship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the three groups in marital satisfaction, dyadic adjustment, and perceived likelihood of separation or divorce. Finally, for attitudes toward children, we also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one's aspirations for having a child,

the spouse's aspirations for having a child, intention to adopt, attitudes toward parenthood, and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among the three childless groups.

In conclusion, voluntary, involuntary, and postponing childless groups differed in individual, relational, and generational aspects. These findings imply that understanding childless Koreans using the three categories would be a useful approach in future research. We also suggest that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need to consider the heterogeneity of the three childless groups in developing public policies and providing services with regards to fertility and childlessness.

Keywords: attitudes toward children, childlessness, coupl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well-being, types of childlessness